

## 아우구스티누스의 『설교(Sermones)』에 전개된 사랑

문영식 (안양대학교)

- I. 들어가는 말
- II. 아우구스티누스와 설교
- III. 아우구스티누스와 도니투스주의자들과의 논쟁의 배경
- IV. 『설교(Sermones)』359에 나타난 사랑의 수사학
  - 1. 설교 연대
  - 2. 『설교』 359의 구조
- V. 나오는 말: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

• ABSTRACT •

---

Love developed in Augustine`s *Sermones* 359

Moon, Young-Sik

The purpose of the Christianity rhetoric is contributing to the truth of the Christianity. Urging to the people that teaching the good and evil and turning back against the truth, conversing to the truth, the duty of the christian preacher is to make a known present and future thing. In preaching, because the preacher delivers the truth of the scripture to the audience or holy people, the problem of the persuasion has still the importance meaning. Through the preaching, the persuasion is needed for the truth delivers to the audience. In preaching, the persuasion means the process that audience or holy people agrees to the truth and moves the heart and practises the truth.

Augustine mention rhetoric of love in *Sermones* 359. Augustine and Donatist debate with rebaptism, in the period, Catholic church and Donatist has been placed conflicts situation. Augustine unfolds rhetoric of love for persuading Donatist. The themes of this paper is rhetoric of St. Augustine`s love developed in *Sermones* 359.

**Key words:** rhetoric, persuasion, love, debate, preaching

---

## I. 들어가는 말

아우구스티누스의 『그리스도교 교양』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즉, 깨달아야 할 내용을 다루고 있는 I-III권, 그리고 깨달은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는 IV권으로 이루어졌다. 깨달아야 할 내용을 다루고 있는 I-III권은 성서 해석에 대해 다루며, IV권은 수사학에 대해서 다룬다. 성서 해석에 대해 다루는 I권에서는 성서해석의 기준으로 사랑을 제시한다. 성서를 해석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데 있다.

먼저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가르침은 사물(res)에 대한 가르침이거나 표지(signum)에 대한 가르침이지만 사물은 표지를 통하여 배워진다.”<sup>1)</sup>는 사물과 표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며 논의를 시작한다. 표지는 다른 것을 의미하거나 지시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고, 사물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 것이다. 사물은 향유하기 위한 것(res fruenda)과 사용하기 위한 것(res utenda)이 있다. 향유하기 위한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사용하기 위한 것은 행복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돕는다. 향유한다는 것은 어떤 사물 그 자체 때문에 그 사물에 애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향유해야 할 사물은 삼위일체이다.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사물이면서 그를 향유하는 모든 이에게 공유되는 사물이다. 우리가 모든 사물 중에서 향유해야 할 것은 영원하고 불변한 삼위일체뿐이다.<sup>2)</sup> 그 밖의 다른 것들은 그 사물들의 향유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은 그 자체 때문에 인간에게 사랑받아야 하는

1) Augustinus, *De Doctrina Christina*, I, 2, 2, *Sancti Aureli Augustini Hipponensis episcopi Opera omnia III- I, post Lovanensium theologorum recensionem Monachorum Ordinis Sancti Benedicti e congregatione S. Mauri*(Paris: 1836). 앞으로는 DDC로 표기하겠다.

2) DDC, I, 22, 20.

냐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사랑받아야 하느냐?라는 물음을 던진다. 인간이 향유해야 할 대상은 삼위일체뿐이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 자신 때문이 아닌 삼위일체 때문에 사랑을 받아야 한다. 그 자체 때문에 사랑받아야 하는 것은 그 안에 행복한 삶이 있는 존재이다. 사람은 누구라도 자신을 향유해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향유해야 하는 그분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 사용해야 할 것은 모두 사랑할 것은 아니고, 사람이나 천사처럼 우리와의 친교로 하나님에게 결속되는 것들이나 혹은 육체처럼 우리와 결부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을 사랑해야 한다.<sup>3)</sup> 하나님은 인간을 향유하시지 않고 사용하신다. 왜냐하면 향유도 않으시고 사용도 않으신다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사물에 대하여 논할 때 중요한 것은 율법과 성경 전부의 완성 내지는 목적이 사랑, 즉 향유해야 할 사물에 대한 사랑임을 이해하는 일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물을 향유할 대상인 하나님과, 사용할 대상인 사물로, 그리고 사용하고 향유할 대상인 인간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율법과 성서의 목적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제시한다. 캐버디니는(John C. Cavaini)는 “사물(res)에 대한 우리의 사용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수사학을 형성한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러나 특별하게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적인 수사학은 동정심에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안에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웃을 향한 향유대신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감동시킨다”고 말한다.<sup>4)</sup>여기서 하나님의 수사학은 결국 기독교 수사학을 의미한다. 기

3) DDC, I, 23, 22.

4) J. C. Cavdini, “The Sweetnes of the Word : Salvation and Augustine`s De doctrina christiana”, *De doctrina christiana : A Classic of Western Culture*, ed. Duane W. H. Arnold & Pamela Bright, (Notre Dame :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5), p. 170.

독교 수사학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지향한다면, 기독교 수사학의 기본 전제는 사랑의 수사학이라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성서 해석의 목표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임을 이해하는 것이 성서해석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즉 『그리스도교 교양』 I 권은 성서 해석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임을 발견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교양』 IV 권은 I 권에서 발견한 내용을 전달하는 표현에 대해 다룬다. I 권의 주제가 성서의 목적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면, IV 권은 수사학을 통해 전달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 역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수사학의 기본 전제는 사랑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도나투스주의자들을 향해 했던 설교를 ‘사랑의 수사학’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사랑의 수사학’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례를 제시하려고 한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도나투스주의자들과 왜 논쟁을 벌였으며, 논쟁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411년 『설교(Sermones)』 359를 분석하며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아우구스티누스 수사학의 전제와 궁극적 목적이 사랑임을 드러낼 것이다.

## II. 아우구스티누스와 설교

먼저 아우구스티누스의 설교의 주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교로 회심한 이후에 그리스도교의 진리에 대한 변호를 위해 끊임없이 설교를 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설교는 그리스도교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주장과 구절들에 대해 반박하고, 가르치는 데 집중했다. 특히 마니교도들, 도나투스주의자, 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 같은 이

단들에 대해 그들의 오류를 지적하고 반박하는 설교에 집중했다.

먼저 아우구스티누스는 386년에 그리스도교로 회심하고 바로 자신이 9년이나 머물러 있었던 마니교도를 향해 설교를 시작했다. 마니교는 영지주의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 광명의 신(Ormuzd)이 선을 지배하고 암흑의 신(Ahriman)이 악을 지배한다는 극단적인 이원론을 주장했다. 그들은 선과 악은 영원하고 양자 간의 싸움도 영원히 전개될 것이며 선과악의 상호투쟁이 반영된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주장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과연 악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풀리지 않는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 9년 동안이나 마니교도로 지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에 9년 동안 몸을 담고 기웃거렸기 때문에 마니교 논박은 쉽고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sup>5)</sup>

두 번째 설교는 도나투스주의자들을 향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312년 이후로 뿔뿔이 흩어져 아프리카 교회로 분열된 도나투스주의자들과 논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당시 아우구스티누스가 주교로 있던 히포(Hippo)는 이미 도나투스주의자들로 뒤덮여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을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라고 부르고, 가톨릭교회는 ‘죄인들의 교회’라고 주장한 분리주의자들이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들이 보편적 교회로 돌아오도록 쉽없이 설득하고 논박했으나, 이들의 폭력 행위가 심화되면서 점차 공권력의 개입을 정당화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저술과 강연, 공개 토론 등을 통해 도나투스주의자의 허구를 지적하고 정통 가톨릭 신앙과 교리를 확인해나갔고, 411년 카르타고에서 열린 공개 토론회에서 가톨릭이 승리를 거둠으로써 도나투스주의는 막을 내린다.<sup>6)</sup>

5) 마니교와의 논쟁 참조 : *Augustine through the ages*, An Encyclopedia, ed., A.D.Fitzgerald, (Cambridge 1999), pp. 39-41과 pp. 520-525.

6) 도나투스분파와의 논쟁 참조: *Saint Augustine and Donatist Controversy*, Geoffrey Grimshew Willis(Wipf and Stock Publishers, 2005).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은 412년에 전환기를 맞이한다. 카르타고 회의가 수도승 펠라기우스의 오류들을 비난했을 때 논쟁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펠라기우스는 아일랜드에서 로마로 건너 온 금욕주의적 수도자였다. 그는 느슨해진 신앙생활에 반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함으로써 결국 은총의 역할을 최소화시키는 오류를 범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회심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졌다고 믿었으며 하나님에 대해 깊은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충격이었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펠라기우스는 알라릭(Alaric)의 침입 전에 아프리카로 도망하기 위해서 망명을 했다. 그는 자신의 진보적인 주장에 대해 신중하게 대답을 했던 아우구스티누스와 교제를 하려고 시도를 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선한 수도승으로서 그리고 도덕주의자로서 특별히 인간은 그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에 대하여 많은 경계를 했다. 그리고 펠라기우스가 강조했던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유의지의 효능은 아우구스티누스가 강조하는 신적인 행위인 예정과 은총과 구원이라는 개념이 상호 대치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신학 전체와 아우구스티누스 회심의 경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는 20년 가깝게 진행된 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의 논쟁의 와중에서 인간의 욕정, 인간의 비참함, 예정과 은총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작품을 쓰며 설교를 했다.<sup>7)</sup>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수사학적인 논박을 통해서 앞에서 언급한 이단들과 논쟁을 했고 실제로 논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논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은 포시디우스의 주장처럼 “이단들마저도 가톨릭 신자들과 함께 뜨거운 관심을 보이며 몰려들어 말씀에 귀 기울였다”<sup>8)</sup>는 것을 의미한다.

7) 펠라기우스와의 논쟁 참조 : *Augustine through the ages*, An Encyclopedia, ed., A.D.Fitzgerald, (Cambridge 1999), pp. 41-47.

8) 포시디우스 저,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 이연학·최원오 역, (경북: 분도출판사, 2008

### III. 아우구스티누스와 도나투스주의자들과의 논쟁의 배경

4세기 북아프리카는 가톨릭교회와 도나투스파 교회로 양분되었다. 이 두 교회는 박해로 인한 배교자들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신학적 배경을 근거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도나투스주의는 4세기 초 북아프리카에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통치 당시(Diocletianus, 284-305)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에 배교한 적이 있는 성직자가 시행하는 성례전의 효력과 관련하여 등장하게 되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303년 2월 그리스도교 책들을 소각하고 교회들을 파괴하라는 칙령을 발표했다. 박해 기간 동안 많은 성직자들은 국가의 압력에 굴복하고 교회의 책들을 로마 당국에 넘겨주었다. 이런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은 ‘넘겨준 자들’(traditores)로 불리게 되었다. 311년 박해가 끝난 뒤 배교자 논쟁이 북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다. 박해가 끝난 뒤 이런 배교자(traditor) 논쟁이 북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 압통가의 펠릭스(Felix of Aptunga)가 카르타고의 주교로 카이킬리아누스(Caecilianus)를 임명했다. 그러나 누미디아의 주교들은 카이킬리아누스를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펠릭스가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박해 당시에 배교자였기 때문에 주교를 임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넘겨준 자가 주교를 세우기 위해 실행하는 안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분노했으며, 카이킬리아누스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오염된 성직제도에 반대하며 이들은 도나투스의 주도 아래 ‘성인들’의 극단적인 교회를 형성했다. 이들은 죄를 지은 성직자들이 성직을 수행하고 성사를 베푸는 일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교회는 죄를 지은 성직자에게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세례를 주고 거룩한 교회가 죄지은 신자들로 구성되는 것을 거부하

---

), VII 1.

고 자신들만이 유일한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였다.<sup>9)</sup> 이러한 도나투스주의의 주된 관심은 박해 속에서 지켜야 할 도덕성과 관련이 있다. 도나투스주의자들은 배교한 적이 있는 성직자들이 시행하는 세례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세례가 필요하며, 그러한 교회는 타락했다고 여겨 가톨릭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갔다. 도나투스주의자들은 가톨릭교회보다는 주관적 교회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 314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교회의 일치를 위해 아를(Arles)교회회의를 소집했다. 3명의 영국 주교를 포함한 전체 가톨릭교회를 대표하는 참석자들은 카이킬리아누스의 선출이 정당했음을 선언했다. 이 선언에 대해 도나투스파는 반발하였고, 이 단으로 정죄되었다.<sup>10)</sup> 이후 도나투스파는 317년에서 321년 사이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그 후 347년까지 박해가 이어졌다. 그럼에도 도나투스교회는 누미디아와 카르타고에서 많은 교세를 확장하고 있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388년 아프리카로 돌아온 당시는 분열을 일으킨 도나투스파 교회가 그 지역에서 주민들의 지원을 받으며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히포의 주교로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진리에 대해 어긋나는 이단이나 이교도와 논쟁하는 것이었다.<sup>11)</sup> 아우구스티누스는 내적으로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정립하고 외적으로는 이단이나 이교도와의 논쟁에서 대응하고 수호해야만 했다. 그는 마니교도와의 논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프리카의 최대 이단인 도나투스주의자들과의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다.<sup>12)</sup>

9) 허버투스 드롭너 저, 하성수 역, 『교부학』, (경북 : 분도출판사, 2001), pp. 532-533.

10) J. D. Douglas,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Grand Rapid: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4), p. 69.

11) 아우구스티누스는 도나투스주의를 이단으로 부르는 것보다는 분파로 여겼다. 그가 도나투스주의를 이단으로 부르는 경우는 가톨릭교회로 돌아서기 전까지라는 단서를 붙이고 사용한다. 그러나 도나투스주의는 가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를 주장한다는 의미에서 분파로 여겼다. 이 논문에서도 도나투스주의를 도나투스분파로 지칭한다.

12) 도나투스주의에 대해서는 *Augustine through the ages*, An Encyclopedia, ed.

IV. 『설교(Sermones)』 359<sup>13)</sup>에 나타난 사랑의 수사학

## 1. 설교 연대

아우구스티누스와 도나투스주의자들과의 논쟁은 설교와 공개토론 그리고 서신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그는 도나투스주의자들과의 본격적인 논쟁에 앞서 393년 『도나투스 분파 반박 시편』을 써서 가톨릭 교회의 초신자들에게 도나투스주의자의 기원과 그 오류들을 알게 하고 도나투스주의자들에게 가톨릭교회와의 재일치를 복돋았다. 그 후 도나투스주의자들과 논쟁이 시작되었고, 400년에는 『세례에 관하여 도나투스파 반박』<sup>14)</sup>을 썼다. 401년에는 『페틸리아누스의 글에 반대하여』를 썼고, 405년에는 『교회의 통일에 관하여』를 썼고, 410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도나투스파의 감독인 페틸리아누스(Petillianus of Cirta)의 편지에 답하는 형식으로 『페틸리아누스를 반대하는 세례의 통일성에 관하여』를 썼다.<sup>15)</sup> 그리고 411년에는 도나투스주의자들을 반대해서 1월부터 3월까지 카르타고에서, 4월에서 6월은 그 외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설교를 했다. 카르타고에서 도나투스분파와의 교회회의는 6월 1일, 3일, 8일에 정점에 이르렀다. 이 회의에서 가톨릭 주교들은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하여 286명, 도나투스분파들은 285명이 참여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설교』 359는

A.D.Fitzgerald, (Cambridge, 1999), pp. 281-287을 참조.

13) Augustinus, *Sermones*, 359, *Sancti Aureli Augustini Hipponensis episcopi Opera omnia V-II, post Lovanensium theologorum recensionem Monachorum Ordinis Sancti Benedicti e congregatione S. Mauri(Paris: 1838)*.

14) 이 책은 모두 7권으로 구성되었다. 1권에서 세례의 은총은 가톨릭 밖에도 있으나, 세례의 유익은 그가 가톨릭교회에 들어와야 받을 수 있음을 밝힌다. 2권에서는 재세례에 대한 키프리아누스의 오류를 지적한다. 3권부터 5권은 키프리아누스의 저술들을 논박하며 6권과 7권은 도나투스주의 감독들의 주장을 반박한다.

15) 도나투스분파와 관련된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술들은 *Augustine through the ages*, An Encyclopedia, ed. A.D.Fitzgerald, (Cambridge. 1999), pp. 34-39를 참조.

이 무렵에 비제르테(Bizerta)에서 도나투스분파를 향한 설교이다. 이 외에도 저작과 서간문, 그리고 설교문을 통해 도나투스주의의 오류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때로는 그들과의 교섭을 시도했다. 이러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모습에 대해 포시디우스는 “사실 아우구스티누스께서는 도나투스파 주교들과 유명한 평신도들에게 사신(私信)을 써 보내셨다. 여기서 그분은 이치를 설명하시면서 그들이 오류에서 벗어나 교정되도록, 혹은 적어도 당신과의 토론에 나서도록 훈계하셨다”<sup>16)</sup>고 언급한다.

## 2. 『설교』 359의 구조

가비(A. E. Garvie)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설교를 성서의 본문에 대해 강해하는 설교(de Scripturis), 교회 절기 설교(de tempore), 사도와 순교자들에 대한 설교(de sanctis), 그리고 마지막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설교(de diversis)로 구분한다.<sup>17)</sup> 아우구스티누스 『설교』 359는 가비의 구분의 따르면, 도나투스분파들과의 논쟁과 일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영역에 해당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설교이다. 『설교』 359는 모두 9항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일반적인 연설문 내용 구성의 여섯 부분<sup>18)</sup>으로 『설교』 359를 구분하고자 한다.

16) 포시디우스(2008), IX, 3.

17) A. E. Garvie, *The Christian Preacher*(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20), p. 84.

18) 연설문의 구성은 통상적으로 다음의 여섯 부분으로 전개되었다.

① exordium: 호의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는 도입, ② narratio: 사건의 진술 또는 담화, ③ partitio: 논의된 사건의 표제의 발표(divisio라고도 부른다), ④ confirmatio: 확증을 위한 구조적인 논변들, ⑤ refutatio: 대적자들의 주장들을 반박하는 논변들, ⑥ conclusio: 요약, 결론 그리고 마지막 호소

아우구스티누스의 『설교』 359도 위의 여섯 부분으로 분석해보았다.

주제: 도나투스분파들과의 논쟁과 일치에 대하여

(De disputate et concordia cum Donatistis)

도나투스분파와의 논쟁으로 카르타고에서 교회회의가 403년 열리기 시작해서, 407년, 410년 그리고 411년에 열렸다. 『설교』 359편은 카르타고에서 열린 교회회의 직후에 도나투스분파와의 논쟁을 마무리하는 설교이다. 이 설교의 주제는 ‘도나투스분파와 가톨릭교회의 일치’이다. 주제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도나투스분파와 논쟁을 하는 이유는 분열을 조장하거나 갈등을 심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도나투스분파와 가톨릭교회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외려 일치와 하나됨을 위해 설교를 하고 있으며, 설교에 나타난 수사학적 기법은 도나투스분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치를 추구한다.

제1항: 설교의 시작(Exordium)

제1항은 설교를 시작하며 이 설교를 시행하는 동기를 밝히고, 청중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부분이다. 그는 형제들과의 일치를(*concordiam fratrum*),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amorem proximorum*), 남편과 아내가 동의( *virum ac mulierem sibi consentientes*)하는 것은 인간들의 일에 있어서(*in rebus humanis*) 선하고 유쾌하고 칭찬할만한 것이지만, 매우 드물다는 것을 지적하며 서두를 열어간다. 그러나 신적인 일(*in divinis rebus*)에서는 훨씬 중요함을 병기한다.<sup>19)</sup> 서두에서 ‘인간의 일’(*in rebus humanis*)을 언급하며 ‘신적인 일’과 대조(*comparatio*)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설교가 결론을 지향하며 일치를 이루는 것이 신적인 일임을 암시하는

---

19) “.concordiam fratrum,et amorem proximorum, et virum ac mulierem sibi consentientes. Bona haec sunt plane,jucunda et laudabilia in rebus humanis; sed in divinis rebus multo potentiora”

기능을 하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설교에서 서론은 대개 장황한 설명을 피하면서 단순한 구성을 택한다. 설교의 시작은 설교를 듣기 위해 나온 청중들에게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기능을 한다.<sup>20)</sup> 이어지는 문제제기는 “형제들이 서로서로 조화롭게 살기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et unde fratres concordare esse difficile est?)”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며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질문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질문에 대해 실제로 답을 모색해 나가는 탐구적 질문(percontatio)과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을 이끌어내며 방법론적으로 제기하는 수사적 질문(interrogatio)이 그것이다.<sup>21)</sup> 여기서는 청중들을 향해 탐구적 질문을 던지며, 청중들이 답을 모색해 나가도록 유도하며 자신의 답을 제시한다. 형제들과의 일치, 이웃에 대한 사랑, 남편과 아내 사이의 동의는 인간의 일들에서 존경받는 일임에도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이다. 그 저간에는 “사람들이 흠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Quia volunt esse terra)이다. 여기서 말하는 ‘흠’은 물리적인 의미의 흠이 아니라 ‘세상’ 또는 ‘세속’을 의미한다. ‘흠’이라는 명사로 세상이라는 전반적인 의미를 가리키고 있는 전의법(Tropus)<sup>22)</sup>을 사용하며, 사

20) Augustinus, *De Doctrina Christina*, IV, 4, 6, *Sancti Aureli Augustini Hipponensis episcopi Opera omnia III- I, post Lovanensium theologorum recensionem Monachorum Ordinis Sancti Benedicti e congregatione S. Mauri*(Paris: 1836). 앞으로는 DDC로 표기하겠다.

21) DDC, III, 3, 6.

22) 전의법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은 DDC, II, 10 15, III, 29, 40과 IV, 7, 21 참조.

표지에는 고유한 표지(signa propria)와 전의적 표지(signa translata)가 있다. 고유한 표지는 한 단어가 본래대로 의미하려는 사물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전의적 표지는 고유한 단어가 우리가 지칭하는 사물과 다른 것을 의미하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면, 소(boves)는 고유한 표지일 때는 가축을 의미하지만, 성서 속에서 전의적으로 사용되어 복음전도자로 사용될 때도 있다. 이러한 경우가 전의적 표지로 사용된 것이다. 여기서는 흠이라는 부분이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제유(synecdoche, 提喻)가 사용되었다.

람들이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제2항: 주제 제시(Narratio)

제1항에서 설교를 시작하며 청중들에게 탐구적 질문으로 관심을 집중시켰다면, 제2항은 이 설교를 통해서 청중들을 가르칠 것인가(docendi causa) 아니면,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여 행동을 촉구할 것인가(movendi causa)를 정해야 한다. 제2항의 요지는 형제들이 서로서로 조화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흠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제2항은 질문(quaestio)과 답변(responsio) 그리고 호소(obsecrationes)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이 설교의 주제가 가르치는 것보다는 마음을 움직여 행동을 촉구하는 데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문체에 있어서도 진리를 가르치는 진술체의 문장보다는 장엄체의 문장이 사용된다.<sup>23)</sup>

“그래서 만약 형제들이 서로서로 조화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땅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일 형제들이 땅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땅이 되어서는 안 된다”<sup>24)</sup>

아우구스티누스는 형제들이 일치를 이루고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 흠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 땅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단호히 말하고 있다. 여기서 의도적으로 장엄체의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 장엄체의 문장을 사용하는 이유는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함이다. 알고 있는 바를 실제로

23) 아우구스티누스의 설교는 주로 이단들과의 논쟁을 다루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주로 장엄체의 문체가 사용된다.

24) “Fratres ergo si volunt esse concordēs, non ament terram. Sed si volunt non amare terram, non sint terra.”

행하도록 마음을 움직여 설복하는 데 사용된다.<sup>25)</sup> 이 장엄체의 문장은 “형제들 사이에 부조화는 어디서 오는가?(Unde inter fratres discordia?)”라는 그의 질문을 통해 더 확장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세 가지로 들고 있다.

“그들은 각각 그 자신의 몫을 향해 주시하고 있고, 개선하고 그 자신의 위치를 더 확장하려 하고, 그 자신의 소유의 단일성을 가지기 원한다.”<sup>26)</sup>

형제들 사이에 부조화가 오는 이유는 각자가 자신의 몫을 주시하고, 개선하고 확장시키려 하며, 자신의 소유의 단일성<sup>27)</sup>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람들 각자가 자신의 몫에 주시하고 자신의 몫을 더 개선하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몫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빼앗아 오는 것이 형제들의 모습임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자를 “자신의 소유를 위해 부당한 것을 행하는 자(qui iniqua gerit), 압박을 하고 계속해서 짜내고 나사를 돌리고 팔을 비트는 사람”(et oppressit, torsit et extorsit)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자는 동료가 아니라 바로 형제들(non quemcumque consortem)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조화와 일치를 깨는 형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일치를 위한 형제 사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자신들 가까이에 있지만 조화를 방해해왔던 도나투스분파들을 향해 ‘부당한 것을 행하는 자’, ‘압박을 하고 계속해서 짜내고 나사를 돌리고 팔을 비트는 사람’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꼬고 있다. 이런 어휘의 선정은 이미 오랜

25) DDC, IV, 12, 28.

26) “et partem suam quisque respicit, et parti suae opimandae et exaggerandae operam impendit, et in possessione sua vult habere unitatem”

27) 여기서 “자신의 소유의 단일성”이라는 표현은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간 지속되어 온 논쟁을 통해 도나투스분파를 향한 감정이 격앙 (concentrationes)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의를 붙잡으라. 그러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하고 있다. 구속자가 당신을 위로하고 있다...우리들의 주님이 우리들의 형제가 될 가치가 있다”<sup>28)</sup>

아우구스티누스는 도나투스분파를 향해 단호한 명령을 내리고 있다. “정의를 붙잡으라”(Tene justitiam)고 말한다. 명령형을 사용하며 장엄체의 문장을 다시 한 번 사용함으로써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장엄체를 통한 설득은 승패와 관련이 있다. 도나투스분파와의 논쟁에서 승리를 이끌기 위해 그들이 불의를 저버리고 정의를 붙잡을 것을 촉구한다. 그럼으로써 더 이상 가톨릭교회를 ‘압박하고 계속해서 짜내고 나사를 돌리듯 팔을 비트는’ 행위를 그만 둘 것을 말하고 있다. 형제들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각자가 자신의 몫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들을 더 확장시키고 자신의 소유의 단일성을 이루려는 데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게 했다면 이어지는 내용은 무엇인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정의를 붙잡으라”는 명령(imperatus)과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하고, 구속자가 당신을 위로하고 있다”는 호소(obsecrationes)를 선택했다. 호소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를 실행에 옮기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

28) “Tene justitiam, non te poeniteat. Consolatur te Dominus Deus tuus, consolatur te Creator tuus, consolatur te Redemptor tuus,...dignatus est enim esse frater noster ille Dominus noster.”

제3항: 구분(**Partitio; Divisio**)

제3항은 아우구스티누스 설교에서 Divisio에 해당한다. 이 Divisio는 제2항에서 제시된 일치를 위해 땅을 사랑해서는 안 되지만,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사례로 제시하면서 현재의 상황, 즉 도나투스분파와 가톨릭교회의 불일치 상황을 설명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제2항에 이어 자신의 소유를 더 확장시키는 문제로 나아간다. 신약성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유산으로 인해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형제들의 사례를 제시한다. 자신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형제는 앞선 제2항에 따르면 땅을 사랑하는 자이고, 이것 때문에 형제들 간에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로 제시된다. 두 형제 중 하나가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요구한다. 이것은 형제사이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원인으로 등장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것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소유를 갖기를 원한다. 이것이 앞서 말한 바처럼 형제들 사이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원인이 될지라도 사람들은 자기가 더 갖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요구를 받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Quomodo nos id facturi sumus?) 여기에 하나의 규칙을 명령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규칙을 붙잡아라. 비록 당신이 요구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할지라도 너는 요구받을 때마다 주어라. 그것이 주님이 행하신 것이다”(Ergo hanc regulam **tenete**. **Date** quando petimini, esti non hoc quod petimini. Hoc fecit Dominus.) 두 문장을 tenete(붙잡아라)와 date(주어라)라는 명령형을 사용하여 연결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듣는 사람에게는 행동을 유발하는 수사적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요구받은 것이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행동하자”(faciamus secundum praeceptum Domini)는 원칙을 제시한다. 만일 어떤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

의 것을 요구받았을 때 모든 것을 주라고 말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정당하지 못하고 나쁜 것을 요구한다면, 좋은 것을 주라는 것(*malum petit, tu bona da*)이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요셉과 수산나를 통해 예증(*exemplum*)한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요구받았을 때 모든 것을 준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형제의 일치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하는 모든 것(*omni petenti*)을 준 것이 아닌 좋은 것(*bona*)을 주기 위해 주님의 교훈(*praeceptum Domini*)을 따라서 행동했다고 말한다.

#### 제4항: 주장의 개진(*Confirmatio*) 1

제4항은 본격적으로 도나투스분파와의 일치문제를 다룬다.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전개된 자신의 입장을 확증(*Confirmatio*)하며 설교자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을 전개하는 단계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더 이상 지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형제들 사이의 화해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말고 꼭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형제의 일치에 대해 말하자고 한다(*Loquamur de illa fratrum concordia, quae vera esse debet, et potest*). 아우구스티누스가 꼭 해야만 하고, 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교 형제들 사이의 일치이다. 이것은 이 설교에서 자신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즉 ‘사랑의 수사학’을 전개함으로 일치와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도나투스분파 교회와 가톨릭교회가 형제이므로 이 둘 사이의 일치에 대해 논의를 확장시키고 있다.

“모든 그리스도교인들이 형제가 되게 하고, 모든 신실한 자들이 형제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교회의 어머니 자궁에서 태어나게 된 형제가 되게 하자. 그들이 형제가 되고 또한 그들이 소유되고 나누어지지 않는 유산을 가지게 하자. 그들의 유산은 하나님 자신이다.”<sup>29)</sup>

모든 그리스도인들(Christiani omnes)과 모든 신실한 자들(fideles omnes)이 형제가 되게 하자고 하면서, 이 형제들은 하나님과 성령에 의해서 교회의 어머니 자궁에서 태어나게 된 형제들이 되게 하자(fratres sint nati ex Deo et visceribus matris Ecclesiae per Spiritum sanctum)고 하며 문장의 문세가 높아짐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도나투스분파와 가톨릭 교회가 궁극적으로 일치될 이루어야 하는 형제임을 강조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이 궁극적으로 가지게 될 유산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Haereditas eorum Deus ipse est)을 강조하며 자신의 주제를 확증하고 있다. 이 땅에서의 유산은 소송으로 얻을 수 있거나, 저 따위 소송으로 잃어버릴 수(Alia haereditas litigando acquiritur, ista litigando amittitur) 있다.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는 “ista litigando”를 말한다. 소송 앞에 경멸이나 비하의 의미를 담고 있는 ista(저 따위의)를 언급함으로써 이 땅에서의 소송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인들이 가져야 할 유산은 하나님 자신이다. 소송이 없기 때문에 화해 안에서 보존될 수 있는 것(in hac haereditate coccordia custoditur)이다.

도나투스분파들은 가톨릭교회와의 분리를 말하며 하나의 분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들의 소송에 의해서 형제들인지, 평화는 무엇이며, 선의가 무엇이며,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의가 무엇인지에 (quam pacifica, quam benigna, quam justa, quam fidelis) 주목하라(videte)고 말한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볼 때, 도나투스분파들은 일치 밖에 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와 가톨릭교회는 일치를 이루고자 한다. 왜냐하면 도나투스분파의 상실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의

29) “Fratres sint Christiani omnes, fratres sint fideles omnes, fratres sint nati ex Deo et visceribus matris Ecclesiae per Spiritum sanctum : fratres sint, habeant et ipsi haereditatem dandam, et non dividendam. Haereditas eorum Deus ipse est.”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sup>30)</sup> 상실(detrimentum)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획득(lucrum)을 통한 일치를 이루는 것이 정의임을 말하고 있다. 상실(detrimentum)과 획득(lucrum)이라는 단어가 대조를 이루며 도나투스 분파의 목표와 가톨릭교회의 목표가 서로 다름을 드러내고 있다.<sup>31)</sup>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도나투스분파와의 논쟁을 통해 희망하는 것은 그들이 가톨릭교회와 함께 유산을 얻는 것(acquirere nobiscum)이다.

#### 제5항: 주장의 개진(Confirmatio) 2

제5항은 4항에 이어지는 본론의 개진이다. 역시 5항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도나투스분파를 향해 “당신 안에는 인간의 오류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 없고, 우리가 증오하는 것이 없고, 우리가 혐오하는 것도 없다. 우리가 증오하는 것은 인간의 오류이지 신적인 진리가 아니다(in vobis nihil odimus, nihil detestamur, nihil exsecramur, nihil anathemamus, nisi humanum errorem. Humanum, diximus, detestamur errorem, non divinam veritatem).”고 말한다. 아우구스티누스를 포함한 가톨릭교회가 오랜 기간 동안 도나투스분파와 논쟁을 하고, 카르타고에서 교회회의를 개최하는 이유는 도나투스분파를 향한 증오가 아니라 는 점을 명백히 한다. 가톨릭교회가 미워하는 것은 그들의 오류임을 지적

30) “scitis qui extra unitatem litigatis; scitis et vos, qui ex divisione acquisiti estis: scitis quia ista lis non est talis lis, quia non est malevola, quia non tendit in detrimentum adversarii, sed magis in lucrum.”

31) 도나투스분파는 스스로 가톨릭교회와 분리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분리주의자’들이라고 불린다. 가톨릭교회로부터의 분리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볼 때 상실을 의미한다. 반면에 가톨릭교회는 보편교회라는 측면에서 일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실보다는 획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고, 그 오류를 교정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임을 밝히고 있다. 도나투스 분파가 인간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일탈이라고 말하며 교정받기를(*quod vestrum improbum habetis, corrigimus*) 희망한다. 그들이 정도를 벗어난 일탈의 상태에 있으므로, 군대의 용어를 도입하여 탈영병이라고 지칭한다. 이러한 탈영병을 교정하기 위한 방법은 소송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대책을 제시하며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내 주님의 표지, 내 황제의 표지, 내 왕의 표지를 나는 탈영병에게서 인식한다. 나는 탈영병을 찾기 위하여 간다. 나는 그를 찾았다. 그에게 다가갔다.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건다. 그의 손을 잡는다. 그를 데리고 온다. 그를 교정한다. 나는 그의 연대의 표지나 배지에 어떠한 폭력도 하지 않는다. 만일 모든 사람이 주목한다면, 이것은 소송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이다”<sup>32)</sup>

아우구스티누스는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소송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나투스분파를 사랑하기 때문에, 즉 화해와 일치를 이루기 위해 그들에게<sup>33)</sup> 찾아가서 말을 걸고, 손을 잡으며 그들을 데리고 오며 교정한다. 여기서 점층법(*Gradatione*)을 사용하고 있다. 가톨릭교회로부터 이탈한 탈영병을 찾고, 다가가고, 말을 걸고, 손을 잡고, 데리고 오고, 교정하는 행위들이 점층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평화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의 교회 안에서 서로서로 화해를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형제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러

32) “Signum Domini mei, signum Imperatoris mei, characterem Regis mei in desertore agnosco quaero, invenio, admoveo, accedo, apprehendo, duco, corrigo desertorem, non violo characterem. Si quis advertat, si quis attendat, hoc non est litigare, sed amare.”

33) 아우구스티누스는 가톨릭교회에서 분리되어 분파를 형성한 도나투스파를 향해 탈영병 또는 탈선자라는 의미로 *desertor*라고 부른다.

한 화해는 아름다운 것(Diximus posse in unos a Ecclesis, pacis causa, esse fratres concordantes speciosa enim res est concordia fratrum,)이다. 그러나 이것이 가톨릭교회가 안수한 주교와 도나투스분파가 안수한 두 명의 주교<sup>34)</sup>아래서는 가능할 수 없다(Nom posse enim duos esse episcopos)는 것을 분명히 한다. 이것은 마치 제3항에서 유산을 요구한 동생 때문에 두 형제가 일치를 이루지 못한 사례와 유사하다. 그러므로 제5항을 마무리 할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3항에 언급된 내용을 다시 주지시키며 신약성서 누가복음 12: 13절의 “명하여 내 형제가 나와 함께 소유하게 하소서”를 인용한다. 이 형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나투스분파도 분열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교회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유산을 얻어야만 한다”고 촉구한다.

#### 제6항: 반박(Refutatio) 1

제6항은 4.5항에서 개진된 자신의 주장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 도나투스분파의 주장에 반박을 하고 있다. 반박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내용은 도나투스분파들이 주장하는 재세례<sup>35)</sup>의 문제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한

34) 311년 카르타고의 감독 멘수리우스가 사망하고, 변절한 적이 있는 펠릭스가 카이킬리아누스를 안수하고 감독으로 세우자 논쟁이 시작되었다. 312년 누미디아의 대주교 세쿰두스는 카르타고에서 엄격주의자들의 회의를 개최하여, 카이킬리아누스를 인정하지 않고 마조리누스를 감독으로 안수해 세웠다. 마조리누스를 계승한 자가 도나투스이다. 도나투스 카르타고의 감독으로서 347년까지 약 40년간 분리주의적 성격을 가진 도나투스주의 교회를 이끌었다. 405년 황제의 연합령 공포 때까지 이 분리주의는 북아프리카에서 다수파 교회가 되었다. 여기서 두 주교는 가톨릭에서 세운 주교와 도나투스분파가 안수한 주교를 의미한다.

35) 도나투스분파의 페틸리아누스는 가톨릭교회의 배교자의 세례와 안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죽은 자에게 세례 받은 이에겐 그 씻음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죽은 자에게 세례 받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배교자가 비록 살아 있으나 심각하게 죽은 것임을 숙고하고 선언해야 한다. 참된 세례로 거듭남에 합당치 못한 이는 죽은 것이며, 참된 세례로 거듭났을지라도 배교자와 관계하게 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우리 모두가 비난을 받거나 재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가능한가?(ut propter culpam unius hominis damnandi aut re-baptizandi judicaremur?)라는 반문을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의 잘못이라는 것은 311년 카르타고의 감독 멘수리우스가 사망하고, 박해의 시기에 변절한 적이 있는 펠릭스가 카이킬리아누스를 인수하고 감독으로 임명한 것을 의미한다. 도나투스분파는 변절한 펠릭스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에게 인수를 받은 카이킬리아누스가 세례를 베푸는 행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는 카이킬리아누스의 정의에 대한 상으로 주어지지 않았고, 카이킬리아누스의 죄에 대해서 판결되지도 않았다(nec justitia Caeciliani damnat Ecclesiam, nec culpa Caeciliani damnat Ecclesiam)”고 반박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에서 볼 때 세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세례자체가 중요하다. 세례의 집행자가 오염되고 불결하다고 할지라도 세례자체는 필연적으로 거룩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기 때문에 교회와 세례는 카이킬리아누스의 행위와 상관이 없다. 더 나아가 카이킬리아누스는 형제임을 강조한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우리들의 어머니는 교회이다. 카이킬리아누스는 우리들의 형제였다”<sup>36)</sup>

여기서 형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형제는 일치를 지향해야 하는데, 지금

---

이도 마찬가지로 죽은 것이다. 아예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이나 받았으나 잃어버린 이, 둘 다 세례의 생명이 없다” 『페틸리아누스의 글에 반대하여』(Contra litteras Petiliani II, vii, 14 참조)

“당신들은 자기 죄에 빠져 그릇된 것을 행하기에, 내가 세례를 두 번 거행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세례를 한 번도 거행하지 않은 것이다” 『페틸리아누스의 글에 반대하여』(Contra litteras Petiliani II, x x v, 58, 참조)

36) Pater nobis Deus est, mater nobis Ecclesia est; Caecilianus frater fuit.

은 도나투스분파의 중상모략으로 일치가 아닌 분열되었음을 비판하기 위함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만일 우리가 카이킬리아누스가 무죄라는 것을 발견한다면 또한 인간의 중상모략이라는 악속으로 빠진 당신은 이제 어디에 있을 것인가?(Si invenerimus eum innocentem, jam vos ubi eritis, qui et in ipsa humana calumnia defecistis?)”라는 물음을 던진다. 카이킬리아누스가 우리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도나투스분파의 중상모략으로 공격을 받았지만 카이킬리아누스는 죄가 없었음을 밝힌다.

“카이실리아누스는 무죄로 밝혀졌고, 그는 잘못된 기소자들에 의해서 공격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1번은 그가 없을 때 비난 받았고, 3번은 그가 있었을 때 무죄 받았다. 파벌에 의해서 비난받았고, 교회의 진리의 판결에 의해서 무죄 받았다. 이 모든 것들이 소리 내어 읽혀졌고 예상대로 그 모든 것들이 사실로 증명되었다.”<sup>37)</sup>

아우구스티누스는 카르타고 교회회의의 결정으로 도나투스분파를 반박하고 있다. 도나투스분파의 반박을 위해 아우구스티누스는 진술체의 문장을 사용했다. 진술체의 문장은 사실을 설명하고 기술함으로써 가르치는 기능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된 문장 자체가 명료(perspicuitas)하게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 제7항: 반박(Refutatio) 2

제7항은 도나투스분파와의 논쟁은 가톨릭교회의 승리와 도나투스분파의 패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두의 승리로 끝이 났음을 밝힌다. 왜냐하

37) “Inventus est innocens, inventus est a calumniantibus appetitus, Semel absens damnatus, praesens ter absolutus: damnatus a factione, absolutus ab ecclesiastica veritate. Lecta sunt haec, probata sunt haec.”

면 패배한 쪽에서도 패배를 통해서 상실이 아니라 오히려 과오를 교정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톨릭교회에서도 형제들과의 일치를 이루게 된 것이므로 승리를 얻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기뻐할 수 있다. 그들 중의 상당수는 이익이 되게 패배했다. 왜냐하면, 사실 그들은 패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의 과오는 패배했고, 인류는 구원받았다”<sup>38)</sup>

아우구스티누스는 도나투스분파의 과오에 집중하며 가톨릭교회를 의사에, 도나투스분파를 환자에 비유한다. 도나투스분파는 과오를 가지고 있는 환자이며, 가톨릭교회는 이러한 과오를 교정해야 하는 의사에 비유한다. 환자가 열이 있어 몸부림치고 있다면, 의사는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 환자가 치료되는 동안, 환자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열이 패배하는 것이다. 만일 의사가 승리한다면 환자는 열로부터 구원받게 된다. 만일 열이 승리한다면 환자는 열에 의해 죽을 것이다. 의사는 환자의 치료와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다. 가톨릭교회는 도나투스분파와 함께 투쟁하고 있었고, 그리고 다소간 논쟁과 소송을 했다. 가톨릭교회가 투쟁하고 소송을 한 것은 도나투스분파를 치료하기 위한 과정으로 비유된다. 그리고 이 모든 행위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가톨릭교회가 도나투스분파와 일치를 위한 노력들이 그들을 사랑하기(et tamen amabamus) 때문에 당연히 행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한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도나투스분파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sed ad salutem molesti sunt).

38) “Et tamen de multis gaudemus. Multi eorum fructuose victi sunt, quia nec victi sunt. Error humanus victus est, homo salvatus.”

제8항: 반박(Refutatio) 3

제8항은 카르타고 교회회의의 결정을 따르지 못하고 광분한 도나투스파의 행동과 그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동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도나투스분파의 광분한 자들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꽤 그들의 정신이 나갔고, 그들은 배회하고 정신이 나가고 미쳤고, 무기를 착용했다. 그들이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려, 그들이 눈멀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려, 그렇다. 우리들은 바로 소식을 접했다. 그들이 우리들의 사제들의 한 사람의 혀를 잘랐다. 이러한 사람들은 광분한 상태에 있다. 그들은 또한 사랑받아야만 한다. 그들의 상당수는 빛을 보면서 심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랑은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섬기도록 한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혼드는 것에 의해서 둔한 자와 규제된 것에 의해서 광분한 자들 두 종류에게 고질적인 성가신 것들일지라도 우리들은 동시에 그들 모두를 사랑한다”<sup>39)</sup>

도나투스분파의 행동은 가톨릭교회의 사제들의 혀를 자르는 과격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도나투스분파를 향해 광분의 상태에 있으며 정신이 나간 상태라고 말한다.<sup>40)</sup>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들을 향

39) “Phrentici molesti sunt, qui mentem perdierunt, et insani atque furiosi armati vagantur hac atque illac, quaerentes quos occidant, quos excaecent. Nova enim nobis nuntiata sunt, cuidam prebytero nostro linguam exsecurunt. Isti phrentici sunt. Exercenda est charitas, amandi et ipsi. Multi corcti fleverunt de numero ipsorum furiosorum. Flent quotidie praeterita sua, nec satiantur lacrymis attendentes eorum furorem, qui non digesta ebrietate vanitatis adhuc saeviunt. Ergo quid facimus? Talibus servire charitas cogit. Et quamvis molesti sumus utrique generi, et lethargicum excitando, et phrenticum ligando, ambos tamen amamus.”

40) 도나투스분파의 광분한 무리를 키르쿰켈리온(Circumcelliones)라 부른다. 이들은 ‘농촌의 오두막을 전전하는 자들’(cellas circumcelliones rusticorum)에서 유래했다. 이들은 누미디아 지방의 농부들로 구성되어 가톨릭교회와의 모든 화해와 일치를 거부하며

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청중들에게, 특히 가톨릭교회 일원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어서 그는 “사랑이 광분한 도나투스분파를 섬기도록 강요한다”고 말한다. 광분한 상태에 있는 도나투스분파를 섬기고 사랑 하는 것은 당위임을 강조한다. 광분한 자들을 향해 질타(invectio)의 어법을 사용할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오히려 가톨릭 교회가 도나투스분파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격양(concitatō)시키고 행동을 하도록 촉구(movere)하고 있다. 질타를 통해 일치를 지향하는 것보다 사랑을 통해 형제와의 일치라는 목적을 지향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이것은 제4항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꼭 해야만 하고, 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교 형제들 사이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광분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강조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감정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도나투스분파를 향한 반박이 최고조에 이르렀음을 볼 수 있다. 형제간에 분열로 인해 과격한 행동양태를 보이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함에도 그들을 사랑해야 함을 단호하게 역설하며 결론을 향하고 있다.

#### 제9항 Conclusio : 결론

제9항은 『설교』 359의 결론에 해당한다. 제8항에서 행동에의 촉구를 하며 사랑할 것을 강조했다. 제9항 결론에서는 행동에의 촉구보다는 가르침을 위주로 하고 있다. 수사학의 목표는 가르침(docere)과 행동의 촉구(movere)이다. 제8항에서 사랑을 촉구하고, 이어 제9항은 마지막 가르침을 준다. 이 두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설득이라는 단일한 목표를 지향하며 결론으로 향한다.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형제들 간의 일치를 다시

---

난폭한 광신적 행동을 일삼았다.

한 번 언급한다.

“형제들 사이의 일치는 선한 일이다. 그러나 주목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교, 이웃의 사랑 안에서라는 것을”<sup>41)</sup>

아우구스티누스는 결론으로 도나투스분파도 가톨릭교회도 모두 인간이고, 이웃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것은 제1항 서두에서 언급한 형제들과의 일치를(*concordiam fratrum*),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amorem proximorum*) 이루는 것이 인간의 일들에서 선하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다. 그리고 일치를 이루기 위해, 형제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을 설교의 결론으로 가르친다(*Quia homo, proximus est; ames et ipsum, ut lucreris et ipsum*). 사랑을 통해 일치를 이룰 때 가톨릭교회는 형제 그리스도인들과 화해에 있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 결론에서 제시하며 설교를 마무리한다(*Si ergo concordet cum fratre christiano, ames autem proximum*).

## V. 나오는 말: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이상으로 도나투스분파와 가톨릭교회의 일치를 다루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설교』 359를 *Exordium*(설교의 시작), *Narratio*(주제제시), *Divisio*(구분), *Confirmatio*(주장의 개진), *Refutatio*(반박), *Conclusio*(결론)으로 분석해 보았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수사학의 목적은 그리스도교 진리를 설득하는 데 있다. 또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수사학은 교회라는 영

---

41) “Bona res concordia fratrum; sed videte ubi : in Christo, Christianorum. Et amor proximorum”

역에서, 그리스도교적 목양과 관련된 주제와 사안을 가지고, 설교라는 연설 장르에서 펼쳐졌다. 비록 고대 수사학과는 다루는 사안이 달랐을지라도, 설득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고, 고대 수사학에서 펼쳐졌던 수사학적 기교와 어법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설교를 통해서도 사용되고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이런 측면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수사학은 그리스도교 수사학이라는 장르를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딜리스톤(Frederick w. dilliston)의 주장처럼 도나투스주의자들을 가톨릭교회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르치면서 설득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했다.<sup>42)</sup> 이때 사용한 방법론은 ‘사랑의 수사학’이었다. 당시 가톨릭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도나투스분파의 상황은 일탈한 ‘탈영병’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리하여 그들을 압박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들을 ‘교정’하여 ‘화해’와 ‘일치’를 만들려고 수사학을 펼쳤다. 가톨릭교회와 도나투스분파는 의사와 환자로 인식했다. 의사가 환자를 사랑으로 치료해야 하는 것처럼, 가톨릭교회는 형제의 하나됨을 위해 사랑할 것을 강조했다. 분열과 갈등의 격화로 이어질 것처럼 보였지만 사랑으로 감싸는 그의 시도는 자신의 수사학이 궁극적으로 ‘사랑의 수사학’을 지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사회는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 신·구, 노사로 양분되어 갈등을 겪고 있다. 교회로 눈을 돌려도 교단 분열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다. 교단 간의 신학적 대립과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분열은 한국교회에 교파주의를 낳게 되었다. 개교회적으로 볼 때도 교회 지도자의 문제, 성도들 간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요인, 신앙의 정도 차이는 성도사이의 일치를 저해하고 있다. 불신과 반목은 시간이 갈수록 격화되어 가는 것이

42) Frederick w. dilliston, "The Anti-Donatist Writings", Robert Battenhouse 편, 앞의 책, p. 197. (『아우구스티누스 연구 핸드북』, 현재규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p. 241.)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분열 속에서 소통과 일치의 노력이 필요하다. 소통이란 막힌 것을 트는 것이지만, 양자 간에 막힌 것이 트이는 것보다 오히려 갈등이 더 견고해지고 있는 듯하다. 소통(疏通)의 부재 때문이다. 소(疏)는 ‘트다’의 의미이고, 통(通)은 ‘연결하다’의 의미를 가진다. ‘소통’은 구체적으로 막혔던 것을 터서 물과 같은 것이 잘 흐르도록 하는 작용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그래서 ‘통’이라는 개념보다는 ‘소’라는 개념이 더 중요하다. 막혔던 것을 터버리지 않는다면, 서로 연결될 수도 없고 물과 같은 것이 흐를 수 없다. 나와 타자 사이의 연결을 가로막는 것, 그래서 타자와 연결되기 위해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현대사회, 특히 교회의 분열 문제 해결과 일치를 위해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의 수사학’이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교파와 개교회들은 서로 타협 없는 자기애를 지향하는 공동체로 전락하고 있다. 기독교가 사회를 갱신하고 변혁해야 하는 소임은 사라지고 오히려 사회적 요인들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 자기애를 넘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회복이야말로 기독교의 중차대한 문제이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sup>43)</sup> 기독교의 정체성은 “사랑하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시오”<sup>44)</sup>와 “나에게서도 나의 무게는 나의 사랑입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든지 간에 나는 사랑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sup>45)</sup>에 잘 나타난다. 사랑은 교회의 분열을 해소할 수 있는 원리이다. 따라서 교회는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모든 인간이 향유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웃을 알고 이웃을 사랑해야

43) DDC, I, 35, 39.

44) 『요한서간강해』, VII, 8.

45) Augustinus, *Confessiones*, VIII, 9, 10. *Sancti Aureli Augustini Hipponensis episcopi Opera omnia I, post Lovanensium theologorum recensionem Monachorum Ordinis Sancti Benedicti e congregatione S. Mauri*(Paris: 1836)

한다. 교회는 사랑의 대상을 바르게 가르치고 실천하여 사랑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 이러한 사랑의 질서 토대위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묶을 수 있느냐의 여부가 교회일치를 향한 기본적 전제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차 문헌

아우구스티누스, 성염 역. 『그리스도교 교양』. 왜관, 2011.

Augustinus, *Confessiones, Sancti Aureli Augustini Hipponensis episcopi Opera omnia, post Lovanensium theologorum recensionem Monachorum Ordinis Sancti Benedicti e congregatione S. Mauri* (Paris: 1836).

Augustinus, *De Doctrina Christina*. Corpus christinanorum, series latina XXXII, Turnhout, Belgium, 1962.

Augustinus, *De Doctrina Christina, IV, Sancti Aureli Augustini Hipponensis episcopi Opera omnia, post Lovanensium theologorum recensionem Monachorum Ordinis Sancti Benedicti e congregatione S. Mauri* (Paris: 1836).

Augustinus, *Sermones, Sancti Aureli Augustini Hipponensis episcopi Opera omnia, post Lovanensium theologorum recensionem Monachorum Ordinis Sancti Benedicti e congregatione S. Mauri* (Paris: 1836).

### 2차 문헌

포시디우스, 이연학·최원오 역.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 분도출판사, 2008.

허버투스 드롭너, 하성수 역. 『교부학』. 왜관, 2001.

Anderson, F. D. "De doctrina christiana II, 18, 28 : The convergency of Athens and Jerusalem". *Rhetoric Society Quarterly*. vol 15 NO. 3/4 (1985), pp. 102-104.

Arnold, Duane W. H. *De doctrina christiana*. ed. Pamela Bright, Notre Dame, 1995.

Baldwin, Ch. S. *The Rhetoric of St. Augustine of Hippo*. Texas, 2008.

Fitzgerald, Allan D. *Augustine through the ages*. Cambridge, 1999.

Fleteren, F. V. "St. Augustine, Neoplatonism, and the Liberal Arts: The Background to De doctrina christiana". *De doctrina christiana*. ed. Duane W. H. Arnold & Pamela Bright, Notre Dame, 1995.

- Fulkerson, G. "Augustine`s Attitude toward Rhetoric in *De doctrina christiana*, *Rhetoric Society Quarterly*. vol 15 NO. 3/4 (1985), pp. 108-111.
- Garvie, A. E. *The Christian Preacher*. New York, 1920.
- Jackson, B.D(ED). *De Dialectica*. Boston, 1975.
- Jackson, B.D(ED). "Semantics and Hermeneutics in Saint Augustine`s *De doctrina christiana*". *Church History*, vol 37 (1968), pp. 203-205.
- J. D. Douglas.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Zondervan publishinc House, 1974.
- Sloane, Thomas O. *Encyclopedia of Rhetoric*. New York, 2001.
- Willis, G. G. *Saint Augustine and the Donatist controversy*. Oregon, 2005.
- Wiethoff, W. E. "The merits of 『De doctrina christiana』 IV, 11, 26". *Rhetoric Society Quarterly*. vol 15 NO 3/4 (1985), pp. 116-118.

논문투고일: 2014. 06. 30.

심사개시일: 2014. 07. 11.

게재확정일: 2014. 08. 09.

---

• 국 문 초 록 •

---

그리스도교 수사학의 목적은 그리스도교 진리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교 설교자의 임무는 선과 악을 가르치고 진리와 등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로 돌아설 것을 촉구하며 현재의 일과 미래의 일에 대해 알려 주는 것이다. 설교에서 설교자는 성서의 진리를 청중인 성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설득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설교를 통해 진리가 회중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설득이다. 설교에서 설득이란 설교자가 설교를 통해 청중인 성도가 진리에 동의하고 마음을 움직여 진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설교』 359에서 사랑의 수사학 대해 언급하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도나투스분파와 재세례 문제로 논쟁을 벌였다. 당시 상황에서 가톨릭교회와 도나투스분파는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도나투스분파를 설득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랑의 수사학을 펼친다. 본 논문은 『설교』 359에 전개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의 수사학을 고찰하고자 한다.

**주제어:** 수사학, 설득, 사랑, 논쟁, 설교

---